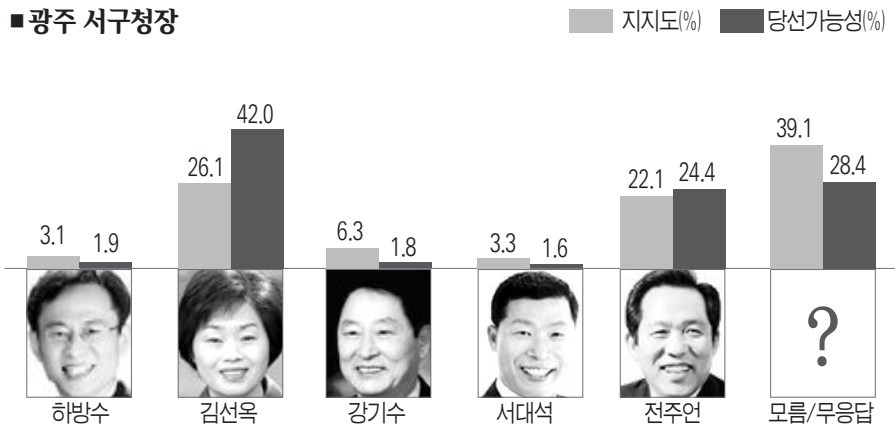


민주 프리미엄 광주 회복세 전남은 미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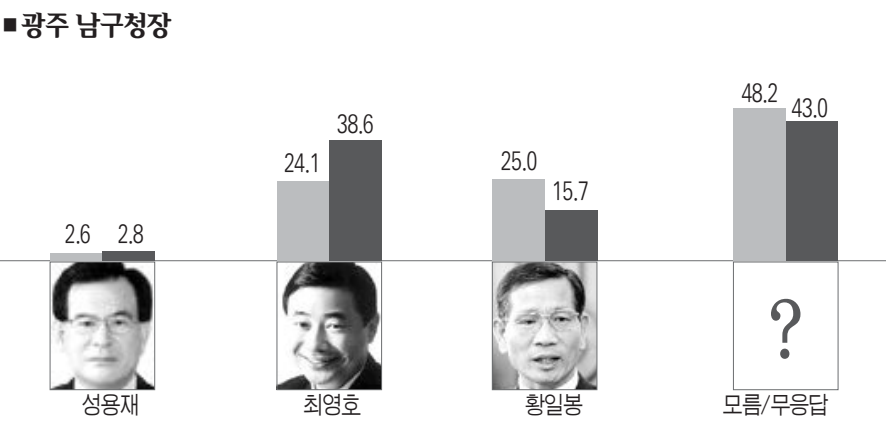
■ 여론조사 어떻게

광주일보는 이번 여론조사를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간 서울지역 여론조사기관인 (주)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다. 각 선거구(지역)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성별·연령별·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조사대상 인원을 할당한 후 무작위로 조사 대상을 추출,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(CATI 시스템) 방식을 사용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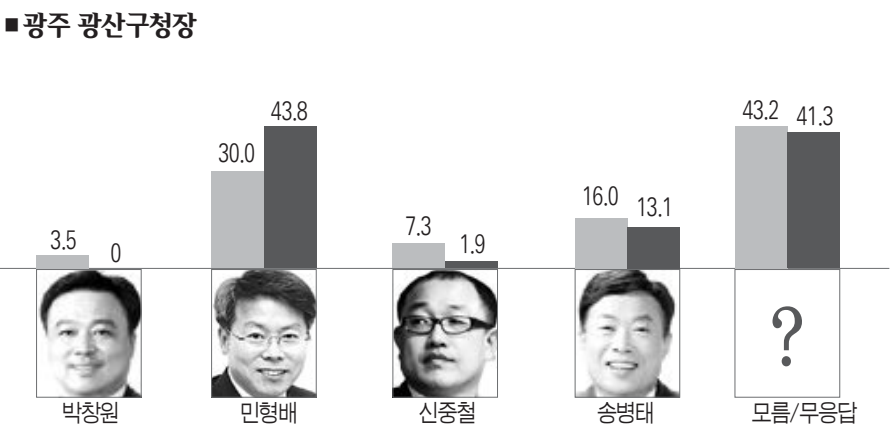
■ 광주 서구청장



■ 광주 남구청장



■ 광주 광산구청장



김선옥-전주언 선두다툼 치열

■ 광주 서구청장

민주당 김선옥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서구청장인 무소속 전주언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김선옥 후보가 26.1%의 지지율로 앞서갔고, 전주언 후보는 22.1%로 바짝 뒤를 쫓았다.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강기수 후보는 6.3%, 국민참여당 서대석 후보 3.3%, 한나라당 하방수 후보 3.1% 순이다. 표집오차가 ±5.7%라는 점에서 김 후보와 전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형국이다. 민주당이 김 후보를 전락공천한 이후, 전 후보가 탈당하면서 판세가 역전한 것으로 풀이된다. 향후 유세과정에서 민주당의 조직력과 무소속 연대의 바람몰이가 맞부딪치면서 서구가 광주·전남 최대의 접전지역으로 떠올라 가능성이 크다. 여론대별로는 김 후보가 19~39세 유권자로부터 32.5%의 지지를 얻어 젊은층에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. 전 후보는 50세 이상에

서 33.2%를 기록해 장년·노년층에서 인기가 높았다. 지역별로는 기초의원 라 선거구(상무2동, 서창동, 금호1동, 금호2동)에서 김 후보(30.8%)가, 가선거구(양동, 양3동, 농성1동, 농성2동, 화정1동, 화정2동)에선 전 후보(28.7%)가 앞서갔다. 당선 가능성은 김 후보가 42.0%를 얻어, 24.4%를 기록한 무소속 전주언 후보보다 17.6% 포인트 앞서갔다. '반드시 투표할 것'이라고 밝힌 적극 투표 층에서도 김 후보는 42.6%의 지지를 확보한 반면, 전 후보는 26.7%를 얻는데 그쳤다. 김 후보는 남성(19.5%)보다는 여성(32%)의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. 전 후보는 여성(18%)보다는 남성(26.6%)의 지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지지 정당은 민주당이 39.9%, 민주노동당 7.6%, 국민참여당 4.1% 순으로 집계됐다. 그러나 모름, 무응답이 39.1%로 나타나 부동층을 누가 잡느냐가 선거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.

황일봉-최영호 0.9%P 차접전

■ 광주 남구청장

무소속 황일봉 후보와 민주당 최영호 후보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초반병의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. 우선 단순 지지율에서 무소속 황일봉 후보는 25%를 기록했고 민주당 최영호 후보는 24.1%를 나타냈다. 한나라당 성용재 후보는 2.6%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. 그러나 당선 가능성에서는 민주당 최 후보가 38.6%를 기록, 15.7%에 그친 무소속 황 후보를 22.9%포인트 차로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한나라당 성 후보는 2.8%를 기록했다. '반드시 투표할 것'이라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무소속 황 후보가 29.6%를 나타내 25.5%에 그친 민주당 최 후보에 간발의 우세를 나타냈다. 그러나 '아마 투표할 것'이라는 응답자들 가운데 26.3%가 최 후보를, 12.1%가 황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투표를 이 높을수록 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.

성별·지역별 지지율에서도 민주당 최 후보와 무소속 황 후보가 1~2% 포인트 차이로 접전을 벌이고 있어,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. 연령별 지지율에서는 40세 이하에서는 최 후보가, 40세 이상에서는 황 후보가 우세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. 이에 따라 남구청장 선거 판세는 접전 속에서 민주당 최 후보의 상승세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. 하지만, 모름·무응답 층이 무려 48.2%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부동층의 향배가 남구청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. 특히, 남구 국회의원 출신인 민주당 강은태 광주시장 후보의 행보도 남구청장 선거 관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. 그가 최 후보와 함께 남구를 누빌 경우 '후광 효과'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남구의 민주당 지지율은 42.2%에 불과하다. 황 후보로서도 해볼 만한 게임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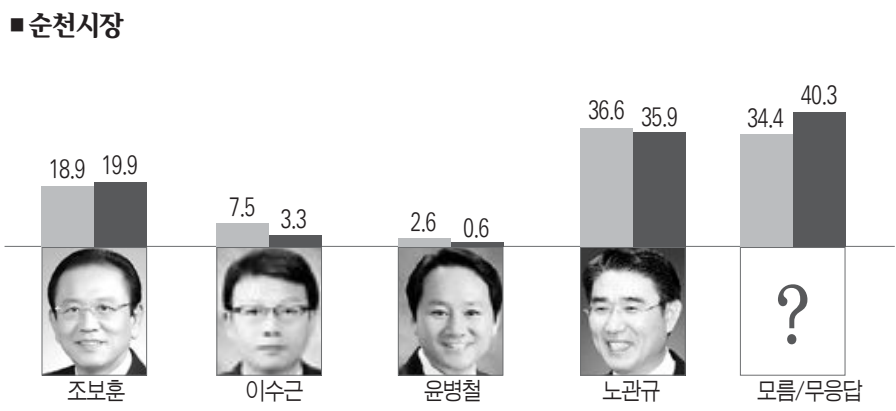
젊은층 민형배·40대 송병태 지지

■ 광주 광산구청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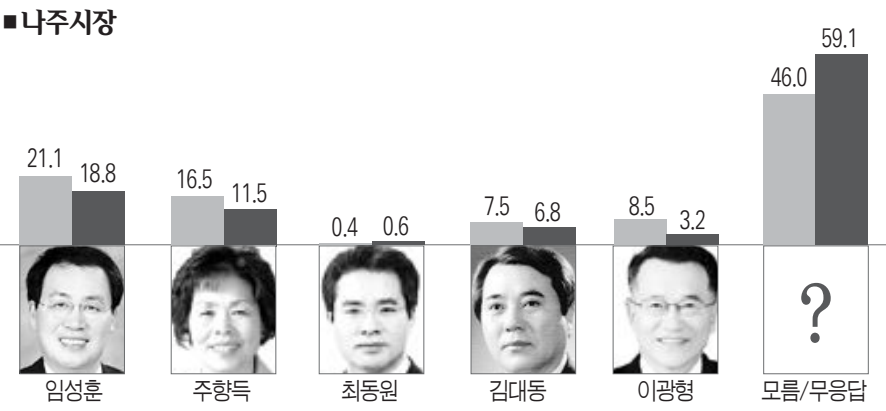
전갑길 전 구청장의 광주시장 출마에 따른 도중하차로 '무주공산(無主空山)'이 되면서 빈 자리를 차지하려는 네 후보 간 세 불리기가 치열한 가운데, 민형배 민주당 후보가 한 발 앞서나가고 있는 형국이다. 민 후보는 이번 지지후보 조사에서 30.0%의 지지율로, 16.0%를 얻은 송병태 국민참여당 후보를 14.0%포인트 차로 따돌리며 지지기반을 넓혀가고 있다. 신중철 민주노동당 후보는 7.3%, 박창원 한나라당 후보는 3.5%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. 민 후보는 19~39세 연령층에서 지지율(35.0%)이 높았고 송 후보는 40~49세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(27.1%)을 기록했다. 지역별로는 기초의원 다 선거구(신흥동, 우산동, 월곡2동)에서 민후보가 36.6%의 지지율을 기록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고, 송 후보는 기초의원 가 선거구인 송정1동,

송정2동, 도산동, 동곡동에서 22.1%로 지지율이 높았다. 또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3.8%가 민 후보를 당선자로 예상했고, 송 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.1%에 머물렀다. 신 후보는 1.9%로 나타났다. '반드시 투표하겠다'는 적극 투표층에서도 민 후보 34.7%, 송후보 20.1%의 지지율을 기록, 14.6%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. 신 후보는 6.3%, 박 후보는 3.3%의 지지율을 얻는데 그쳤다. 정당지지도는 민주당 32.8%, 민주노동당 6.7%, 한나라당·국민참여당 각 2.8% 순이었다. 하지만, 지지후보를 묻는 질문에 '모른다'거나 '무응답'한 부동층도 43.2%에 달했다. 이 정도면 선거 막판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에 따라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수준이다. 후보들의 부동층 잡기가 치열할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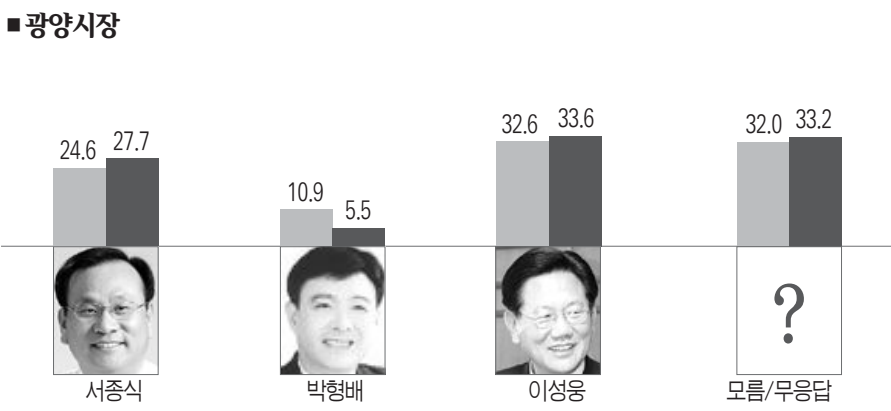
■ 순천시장



■ 나주시장



■ 광양시장



무소속 노관규, 민주 조보훈 압도

■ 순천시장

국제정원박람회 등 지역발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 재선을 노리고 있는 무소속의 노관규 후보가 지지율에 있어 큰 격차를 보이며 민주당 조보훈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노 후보는 36.6%의 지지율로 18.9%에 그친 조 후보를 두 배 가까운 17.7% 포인트 차로 앞섰다. 이는 7~10일 전 다른 언론사 조사의 지지율 격차인 15% 포인트대보다 벌어진 것으로,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질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. 민노당 이수근 후보는 7.5%, 국민참여당 윤병철 후보는 2.6%의 지지율로 뒤를 이었다. 더욱이 '반드시 투표할 것'이라고 밝힌 적극 투표 의향 층에서는 노 후보가 41.6%를 얻은 반면 조 후보는 19.3%를 얻어 그 격차는 일반 지지율 격차보다 큰 22.3% 포인트나 됐다.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 후보들의 당선

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노 후보는 35.9%를 기록, 19.9%에 그친 조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. 민노당 이 후보는 3.2%, 국민참여당 윤 후보는 0.6%를 각각 차지했다. 모름·무응답은 40.3%였다. 노 후보는 한나라당과 국민참여당 등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골고루 지지표가 나왔고, 특히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38.0%의 지지율을 기록해, 33.6%인 민주당 조 후보를 능가했다. 정당 지지율 측면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7.7%에 불과한 반면 '지지하는 정당이 없다'고 답한 응답자도 39.9%나 됐다. 조 후보의 지지율도 민주당 지지율을 크게 밀돈다. 지역별로는, 왕조·삼산동·승주읍·주암면 등 조 후보의 고향 인근에서는 노 후보와 조 후보 간 지지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. 하지만, 아직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가 34.4%나 되는데다, 투표일까지는 변수가 많아 결과를 속단하기 이르다는 분석도 있다.

민주 임성훈-무소속 주향득 혼전

■ 나주시장

민주당 경선에서 승리, 공천을 받은 임성훈 후보와 신정훈 전 시장의 부인 무소속 주향득 후보가 2강 구도를 형성하며 혼전을 펼치고 있다. 지지도 조사에서 임 후보는 21.1%, 주 후보는 16.5%를 얻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어 무소속 이광형 후보가 8.5%, 역시 무소속인 김대동 후보가 7.5%로 추격전을 펼치고 있다. 임 후보는 남성 유권자 층에서는 26.0%대 15.6%로 주 후보를 앞선 반면, 여성 유권자들에게는 주 후보가 17.4%대 16.2%로 임 후보를 앞섰다. 모처럼 만의 여성 후보로서, 지역 여성유권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. 또 임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(41.0%)를 받은 반면, 주 후보는 민노당(38.7%)과 국민참여당(37.4%)의 지지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

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. 적극 투표층에 있어서도 임 후보(22.2%)와 주 후보(18.1%)는 오차 범위 내에서 격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 각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또, '모름 또는 무응답'으로 분류된 부동층이 절반에 가까운 46.0%를 차지했다.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임 후보가 18.8%, 주 후보가 11.5%로 오차범위 이내였다. 김대동 후보는 6.8%, 이광형 후보는 3.2%, 최동원 후보는 0.6%로 뒤를 이었다. 모름·무응답 층은 59.1%였다. 기초의원 선거구별로는 임후보가 나 선거구(다시면, 문평면, 송월동, 금남동, 성북동)에서 20.7%의 지지를 얻는 등 전 선거구에서 고른 지지를 기록했다. 하지만 무소속 후보들이 단일화를 할 경우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. 정당별로는 민주당 35.9%, 민주노동당 7.4%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. 무당층은 42.5%나 됐다. 전통적인 무소속 강세지역인 나주시 다운 면모다.

이성웅·서종식 양강에 박형배 선전

■ 광양시장

광양에서도 무소속 이성웅 후보가 민주당 서종식 후보를 앞서며 전남 동부권의 무소속 바람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지지도에서 현직 군수인 이 후보는 32.6%를 얻어 24.6%를 획득한 서 후보에 8.0% 포인트 앞섰다. 이 격차는 비록 오차범위(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±5.7% 포인트) 내이긴 하나 7~10일 전 다른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거일이 다가와도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. 특히 '반드시 투표하겠다'는 적극 투표층에서는 이 후보가 37.1%로 26.9%에 그친 서 후보를 10.1% 포인트 앞서며 일반 지지도 조사 결과 보다 그 격차를 더 벌렸다. 모름·무응답이 24.1%였고, 박 후보는 11.9%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.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 후보가 33.6%, 서 후보는 27.7%로 그 격차가 5.9% 포인트로

일반 지지도 차이보다 줄었다. 양강을 뒤흔치고 있는 국민참여당 박형배 후보도 10.9%의 지지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이·서 후보는 50대 이상에서 비슷한 격차를 보이며 지지층을 형성했으나 박 후보는 30대 이하에서 18.8%의 지지율을 기록, '노랑' 덕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구도심인 가선거구(광양읍, 옥룡, 봉강)에서는 이 후보가 39.5%를 얻어 18.6%를 얻은 서 후보를 압도했으나 신도심인 나선거구(종마, 골약)에서는 서 후보가 29.0%로 25.6%를 얻은 이 후보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. 하지만, 이 후보는 모든 지역구에서 25% 이상의 고를 지지율을 보이며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민주당 지지율은 순천(37.7%)과 비슷한 37.1%에 불과한 반면, 무당층은 41.1%나 돼 전남 동부권의 반민주당 정서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. /임동욱·박지영·최관일 기자 tuim@kwangju.co.kr